

<2010년 7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편) 비바람 몰아쳐서 철새들 모두 날아갔어도 폭풍 끝나고 나면 또 철새들 날아온다. 환난 뿔박 몰아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환난도 뿔박도 끝이 난다. 그때 힘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환난이 끝나면, 환난 날에 못 한 것을 하며 네 원한이 풀리게 하는 것이다.
2. (주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뜻을 이루며 살다가 하늘의 더 큰 뜻을 품고 사랑하는 애인과 의논하고 타국에 갔다. 그가 타국에 가서 뜻을 이뤄 놓고 10년이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던 자가 다른 자를 사랑하면서 살았다 하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의 방법은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가 깨끗이 청산하고 본래의 맘으로 진정 회심하고 따르면 용서하고, 품은 뜻을 같이 이루며 가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자를 세워 본래 이루려던 뜻을 이루며 가는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3. (주편) 나 예수 외에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나의 말을 깨달아라. 나의 온전한 말을 깨닫고 알고 따라라. 네가 사랑하려고 선정한 자가 너보다 다른 자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겠느냐. 나도 그러하다.
4.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해 주셨다. 또한 꼭 죽을 곳에서 살려 주셨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속의 죽음의 경지에 처했을 때 도와 살려 주셨고, 메시아로서 사랑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보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100%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을 100% 사랑하고 다른 자는 70%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자를 70% 사랑하다가 후에는 그를 사랑하게 되니, 오직 주님만 100% 사랑하고 끝나라는 것이다. 과일 170개가 있으면 100개는 주님께 드리고, 70개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다. 170개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 된다. 주님께 다 드리면 다른 자에게 10개를 주든지, 20개를 주든지,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5. 자기에게 있는 것 100%를 모두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100% 사랑하는 자가 된다.